

# 한문문장속에서 일부 명사의 부사조성현상에 대한 리해

려 동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한문교육방법도 연구하며 한문의 고유한 언어적규범도 연구하여야 합니다.》

(《김정일전집》 제7권 276페이지)

한문문장을 번역하는 과정에는 일부 명사들이 문장속에서 품사전성되어 부사화되면서 상황어로 쓰이는 문법적현상과 자주 맞다들리게 된다.

일반적으로 품사전성법이란 어느 한 품사에 속한 단어를 다른 품사로 전환시킴으로써 어휘구성을 풍부히 해나가는 단어조성수법을 말한다.

한문의 품사전성현상에서 가장 주목되는것은 명사, 형용사, 동사의 사동용법과 의동용법이며 이외에도 일부 보통명사나 수사가 품사전성되어 동사술어로 쓰이는 품사전성현상들이 있다.

이 글에서는 일부 명사가 문장속에서 품사전성되어 이루어지는 부사조성수법에 대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부사조성수법이란 부사가 아닌 다른 품사의 일정한 형태가 문장속에서 부사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과정에 굳어져서 부사로 되는 문법적현상을 말한다.

한문에서 품사전성되어 부사로 쓰이는 대부분의 단어들은 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등의 다른 품사들을 문장속에서 동사, 형용사술어앞의 부사자리에 놓는 어순의 문법적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단어들로서 부사의 어휘구성을 풍부히 하는데 적극적으로 작용하고있다.

한문에는 품사전성현상으로서 부사조성수법이 존재한다.

실례로 《至鯤淵(곤연에 이르렀다.))의 문장에서 한자 《至》는 《이르다》는 뜻을 가진 동사술어로 쓰이었지만 《吾息至陋(나의 자식은 몹시 루추하다.))의 문장에서 한자 《至》는 《지극히, 몹시》라는 뜻을 가진 부사로 되어 상황어로 쓰이었다.

《見大石(큰 돌을 보았다.))의 문장에서 한자 《大》는 《크다》의 뜻을 가진 형용사로서 규정어로 쓰이었지만 《方大寤(바야흐로 크게 군색하였다.))의 문장에서 한자 《大》는 《크게》라는 뜻을 가진 부사로 되어 상황어로 쓰이었다. 《積歲至千石(해를 거듭하여 천석에 이르렀다.))의 문장에서 한자 《歲》는 《해, 년》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로서 보어로 쓰이었지만 《家貧歲食郡糶(집이 가난하여 해마다 관가의 환자쌀을 먹었다.))의 문장에서 한자 《歲》는 《해마다》라는 뜻을 가진 부사로 되어 상황어로 쓰이었다.

이와 같이 한문문장을 번역하는 과정에는 동사, 형용사, 명사 등과 같은 품사들이 문장속에서 품사전성되어 부사로 쓰이는 현상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게 된다.

지난 시기 동사, 형용사가 품사전성되어 부사로 쓰이는 현상에 대하여서는 일반적으로 언급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명사가 문장속에서 품사전성되어 부사로 전환되어 쓰이는 문법적현상과 그것이 표현하는 어휘적의미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무엇보다먼저 일부 명사들이 문장속에서 품사전성되어 부사로 쓰이는 문법적현상과 그것이 표현하는 어휘적의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명사가 문장에서 품사전성되어 표현되는 부사적의미를 잘 알아야 한다.

우선 단어조성수법의 하나인 품사전성수법은 합침법이나 덧붙임법, 소리바꿈법과도

근본적으로 다른 단어조성수법이다.

일반적으로 단어조성수법에는 합침법, 덧붙임법, 소리바꿈법이 있으며 이외에 특수하게 품사전성수법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한 품사에 속한 단어를 다른 품사로 전환시켜 사용함으로써 한 언어의 어휘구성을 풍부히 해나가는 단어조성수법의 하나이다.

특히 무형태언어인 한문에서 품사전성수법은 한문의 어휘구성을 풍부히 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한문의 품사전성현상은 일반적으로 사전에도 올라있지 않는 새로운 의미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어휘구성을 더욱 풍부히 하여준다.

사전에 올라있는 모든 한자들은 기본뜻과 함께 전의된 뜻을 가지며 그 파생된 다의적뜻은 한자마다 서로 다르다.

실례로 《새옥편》에 올라있는 한자 《書》의 뜻은 ① 글, ② 책, ③ 편지, ④ 글씨를 쓰다, ⑤ 서전의 략칭, ⑥ 저술하다, 글을 짓다의 6가지 뜻이다. 여기서 ①, ②, ③, ⑤의 뜻은 명사이며 ④, ⑥의 뜻은 동사이다.

명사의 뜻은 문장속에서 주어, 보어, 규정어로 쓰일 때 표현되며 동사의 뜻은 문장속에서 술어의 기능을 수행할 때 표현된다.

《好讀書(책읽기를 좋아하다.)》의 문장에서 한자 《書》는 《책》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로서 보어로 쓰이였다. 그러나 《一族累千人書名於木(온 가족 수천명이 나무에 이름을 썼다.)》의 문장에서 한자 《書》는 동사술어의 자리에 놓여 자기뒤에 보어 《名(이름)》이 놓인 것으로 하여 《쓰다》는 뜻을 가진 동사술어로 쓰이였다.

이와 같이 사전에 올라있는 매개 한자가 가지고있는 명사적뜻이나 동사적뜻, 형용사적뜻, 부사적뜻은 반드시 문장속에서 일정한 문법적자리를 차지하는 경우에만 표현된다.

그러나 품사전성수법으로 표현되는 한자들의 뜻은 대부분 사전에도 올라있지 않는 뜻으로서 구체적인 언어행위의 문장속에서 새롭게 이루어지며 언어행위가 끝나거나 해당 한자를 문장밖에 내놓으면 그 뜻은 사라지고 본래 한자가 가지고있는 기본뜻들로 되돌아간다는데 있다.

실례로 한자 《鱗(비늘 린)》의 뜻에 대하여 《새옥편》에는 《비늘, 비늘을 가진 동물》이라는 뜻만 올라있는데 문장 《體幹鱗皴(몸체와 줄기가 비늘처럼 터졌다.)》에서 한자 《鱗》이 나타내는 《비늘처럼》이라는 뜻은 이 한자가 부사의 자리에 놓이면서 새롭게 가지는 뜻이다. 즉 이 뜻은 사전에 없는 뜻이다.

품사전성수법의 하나로서 부사조성수법에 의하여 명사가 부사로 전환되어 쓰이는 경우 그것이 나타내는 부사적의미를 몇가지로 나누어 분석할수 있다.

첫째로, 명사가 문장속에서 품사전성되어 부사로 전환되어 쓰이는 경우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시간부사로 쓰인다.

한문에서는 시간부사 今, 既, 已 등 외에도 일부 명사가 문장속에서 품사전성되어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로 쓰인다. 이러한 한자들로는 將, 方, 日, 歲 등과 같은 단어들이다.

례: ① 此歲將暮(이해가 점차 저물어간다.)

② 我方承景命欲啓元基(나는 장차 천제의 명령을 받들어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

③ 馬日肥且壯(말은 날마다 살지면서 건장하여졌다.)

④ 家貧歲食郡糶(집이 가난하여 해마다 관가의 환자쌀을 먹었다.)

우의 실례의 ①과 ②의 명사 將과 方은 다같이 부사가 놓이는 자리에 놓여 《장차》, 《바야흐로》라는 뜻을 가지고 행동이나 상태가 앞으로 지속되면서 이루어지게 될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시간부사로 쓰이었다. 실례의 ③과 ④의 명사 日과 歲는 다같이 부사가 놓이는 자리에 놓여 《날마다》, 《해마다》라는 뜻을 가지고 행동이나 상태가 날과 달을 거듭하여 심화되어간다는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시간부사로 쓰이었다.

둘째로, 명사가 문장속에서 품사전성되어 부사로 쓰이는 경우 동등관계의 비교를 나타내는 부사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우리 말에서 부사 《같이》나 토 《처럼》, 《마냥》 등이 체언의 뒤에 놓여 하나의 단어로 쓰일 때에는 《꽃같이》, 《달처럼》, 《별마냥》 등과 같이 동등관계의 비교를 나타내는 상태부사로 쓰인다. 한문에서도 동등관계를 나타내는 대상성을 가진 명사가 술어로 표현된 동사, 형용사의 앞에 놓여 그것을 수식하는 경우 품사전성되어 동등관계의 비교를 나타내는 상태부사로 쓰인다.

례: 體幹鱗皴(몸체와 줄기가 비늘처럼 더졌다.)

遠近群盜蜂起蟻聚(멀고 가까운 곳의 도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고 개미떼처럼 모여들었다.)

突賊陣疾鬪(적진에 돌입하여 질풍같이 싸웠다.)

鐵片星碎(철편이 별처럼 부서졌다.)

우의 실례의 명사 鱗, 蜂, 蟻, 疾, 星은 다같이 동사술어 皴, 起, 聚, 鬪, 碎의 앞에 부사가 놓이는 자리에 놓여 《비늘처럼》, 《벌떼처럼》, 《개미떼처럼》, 《질풍같이》, 《별마냥》이라는 뜻을 가지고 동등관계의 비교를 나타내는 상태부사로 쓰이었다.

셋째로, 명사가 문장속에서 품사전성되어 부사로 전환되어 쓰이는 경우 행동의 방식을 나타내는 방식부사로 쓰인다.

한문에는 행동의 방식을 나타내는 纔, 獨 등의 방식부사들외에도 일부 명사들이 부사의 자리에 놓여 방식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로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례: 入賊陣力戰死(적진에 돌입하여 힘껏 싸우다 죽었다.)

朱蒙母陰知之(주몽의 어머니가 은밀히 내막을 탐지하였다.)

雙雙併立而舞(쌍쌍이 함께 춤을 춘다.)

우의 실례의 명사 力과 陰은 동사술어 戰, 知之의 앞에 부사가 놓이는 자리에 놓여 《힘껏》, 《은밀히》이라는 뜻을 가지고 방식의 의미를 나타내는 방식부사로 쓰이었으며 명사 雙은 같은 말뿌리의 반복적합침법에 의하여 雙雙의 단어를 이루고 술어 立의 앞에 놓여 《쌍쌍이》라는 뜻을 가지고 행동의 방식을 나타내는 방식부사로 쓰이었다.

넷째로, 일부 명사는 문장속에서 품사전성되어 부사로 전환되어 쓰이는 경우 상태의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부사로 쓰인다.

한문에는 상태의 정도를 나타내는 最, 尤 등의 정도부사들이 있는 외에 일부 명사들도 부사의 자리에 놓여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례: 智慮淵深(슬기있는 생각은 못처럼 깊었다.)

우의 실례의 명사 淵은 형용사술어 深앞의 부사가 놓이는 자리에 놓여 《못처럼》이라는 뜻을 가지고 상태의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부사로 쓰이었다. 그러므로 일부 명사들이 문장속에서 품사전성되어 부사로 쓰이는 경우 그가 나타내는 구체적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번역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조선어와 한문에서의 부사조성수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알고 부사조성수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을 가져야 한다.

조선어와 한문의 부사조성수법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여러 품사들가운데서 기본적으로 동사, 형용사, 명사들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다같이 해당 언어의 어휘구성을 풍부히 해나가는 단어조성수법의 하나라는것이다.

차이점은 우선 조선어의 품사바꿈법은 우리 말 어휘구성을 역사적발전의 견지에서 본 단어조성수법의 하나라는데 있다.

품사바꿈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단어들은 개별적형태부들을 문법적규칙에 따라 서로 결합시키거나 변경시키는 과정에 이루어진 단어들이나 아니라 장기간의 의미발전을 거치거나 일정한 형태체계에서 완전히 떨어져나와 굳어진 형태로 전환되는 과정에 이루어진 단어들이다.

실례로 《정말》, 《참》, 《사실》, 《진정》과 같은 단어들은 본래 명사적으로만 쓰이던것이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과정에 의미기능적변화에 의하여 행동이나 성질, 상태를 수식해주는 부사로 전환된 단어들이며 《진실로》, 《새로》, 《별로》, 《참으로》와 같은 단어들은 명사의 조격형태가 굳어져 부사로 전환된 단어들이며 《당초에》, 《단순에》, 《단김에》와 같은 단어들은 명사의 여격형태가 굳어져 부사로 전환된 단어들이다. 그리고 《따라서》, 《잠자코》, 《두루》와 같은 단어들은 동사 《따르다》, 《잠자다》, 《두루다》와 같은 동사의 형태가 굳어져 부사로 전환된 단어들이며 《고루》, 《곧》과 같은 단어들은 형용사 《고루다》, 《곧다》와 같은 형용사의 형태가 굳어져 부사로 전환된 단어들이다.

그러나 한문의 품사전성수법은 한문부사의 어휘구성을 역사적발전의 견지에서 분석한 단어조성수법이 아니라 문장속에서 해당 동사나 형용사, 명사들을 부사의 자리에 놓는 어순의 수법을 리용하여 립시로 이루어지는 부사조성방법이다. 따라서 어순의 수법에 의하여 립시로 부사의 자리에 놓임으로써 이루어진 부사들은 문장밖에 내놓으면 의연히 동사, 형용사, 명사로 되돌아간다.

차이점은 또한 일정한 명사가 문장속에서 품사전성되어 부사로 쓰이는 경우 그가 나타내는 부사적의미에는 사전에 이미 주어진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전에 이미 주어지지 않고 해당 명사의 말뿌리의 의미에 우리 말의 토 《마다, 마냥, 처럼, 꺾》등이 붙거나 부사 《같이》가 붙어서 새롭게 이루어진다는데 있다.

실례로 將, 陰, 方의 《장차, 가만히(몰래), 바야흐로(장차)》와 같은 뜻은 사전에 이미 주어진 뜻이지만 歲, 日, 力, 疾, 珠, 鱗, 蜂, 蟻, 淵, 雙의 《해마다, 날마다, 힘껏, 질풍같이, 구슬처럼, 비늘처럼, 벌처럼, 개미처럼, 못처럼, 쌍쌍이》와 같은 뜻은 사전에 주어지지 않은 뜻이다. 이러한 부사조성수법에 의하여 한문에는 정해진 부사가 얼마 되지 않지만 품사전성수법에 의하여 부사로 쓰이는 한자들이 대단히 많다.

이밖에도 명사들이 문장속에서 품사전성되어 부사로 쓰이는 현상이 적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를 보다 심화시켜나가야 할것이다.